

## 연구를 삶의 제사로 드리는 실천적 방안

류제경(카이스트 물리학과 박사과정)(대학원 1-4)

### 논문초록

연구는 삶의 일부분으로 주님께서 삶을 제사로 드리라고 하셨으므로 크리스천 연구자들은 연구를 제사로 드려야 한다. 그래서 나는 연구를 어떻게 하면 실천적으로 삶의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지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했고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삶의 제사를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고, 연구를 삶의 제사로 드리게 되려면 어떻게 공동체에서 훈련하고 어떻게 공동체에서 행하면 되는지에 대해 설명했고, 나아가서 크리스천 연구자로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꿈을 정리해보았다.

**주제어:** 삶의 제사, LOM (Life Offering Movement, 삶의 제사 운동), 삶의 제사 아침 모임, 성령의 음성 듣기, SRM(Spiritual Research Movement)

## I. 서론

연구를 하는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면 연구와 신앙이 따로 분리되어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교회 안에서의 예배만 예배가 되고, 연구에서는 예배가 아닌 자기에게 목적을 두는 경우를 보게 된다. 설령 연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면 연구를 신앙과 통합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해 잘 모르고, 신앙과 연구를 통합 시켜서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것 같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세상은 개인의 이기심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삶의 동기를 부여한다. 그래서 사랑이 메말라가고, 생존과 성공을 위해 바빠 움직이는 삶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즉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충돌질 하고 있다. 따라서 세상 속에서 하는 연구는 먹고 살기를 위한 연구이며 성공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연구가 되어 가고 있다.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미명아래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발버둥 치는 모습에는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다.

크리스천으로서 연구를 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지 않고 답을 얻지 못한 채로 연구를 한다면 세상의 잘못된 죄의 굴레 속에 우리의 자신을 맡겨 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연구를 해나가는 방향과 목적 그리고 방법까지 다시 점검해 보고자 한다.

연구는 학문을 하는 사람에게는 삶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연구 또한 삶의 제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삶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방안을 공동체적으로 검토해보고, 연구를 어떻게 하면 삶의 제사로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 언급해보고자 한다.

- 1)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구라는 것이 무엇일까?"
- 2)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데, 왜 우리는 연구실에서 자주 영적으로 놀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연구실에 펼쳐내지 못하는 것일까?"
- 3)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끄신 길이 맞을 텐데,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논문, 졸업, 진로)의 문제에 돌파되지 못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많이 힘들어할까?"
- 4) 왜 연구실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것일까?"
- 5) 예배와 연구가 왜 분리된 것처럼 느껴질까?

위와 같은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나는 내가 속한 학교 신앙 공동체 (KTM, 카이스트 전문인 선교회) 사람들과 함께 SRM (Spiritual Research Movement)라는 운동을 만들고 현재 진행하고 있다. SRM 은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연구를 하는 운동을 의미한다.

이 운동의 취지와 함께 대학원 생들이 어떻게 학교의 신앙 공동체 사람들과 연구를 예배로 드리면서 위의 5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성경을 찾아보면서 풀어보고자 했고, 그로 만들어진 SRM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써보고자 했다.

## II. 본론

### 1. SRM(Spiritual Research Movement) 의 의미

성경 말씀에 진리의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말씀이 나와 있다. 모든 진리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연구도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고 할 수 있다. SRM (Spiritual Research Movement) 란 진리의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연구 운동을 말한다.

요 16:13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일 2:27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쁨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림 1 Spiritual Research Movement

현재까지 성령님의 개입하심을 느끼면서 연구했던 사례가 간혹 있으나, 아직 크리스천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이지 않다. 장성한 크리스천의 삶은 자아가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 한다면 자아가 죽은 사람의 연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셔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가르쳐 주시는 연구라고 본다.

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SRM 을 어떻게 하면 공동체에서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할까에 연구해 보았다.

## 2. 연구를 삶의 제사로 드리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손수 본을 보여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그 제물의 자리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함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

롬 3: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Transformation)**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했다. 주님께서서는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의 몸(삶)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다.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리려면 주님과 정말 뜨거운 사랑을 주고 받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그분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데 열정을 쏟는 자이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져야 하며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해야 하며 이를 가능케 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아 8:6 너는 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 같이 잔인하며 불길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8:7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렸다.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다. 사도 바울의 경우 목숨을 각오하고 로마까지 순교하며 선교하러 갔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밖에 없었다. 그 사랑이 그들의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며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그 강한 사랑을 하였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연애를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자신의 모든 시간을 주고 싶고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서라도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을 느낄 수 있다. 강렬한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 엄청난 열정을 주게 된다. 그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다. 우리는 때로 사역과 연구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한다. 그러나 그런 목적들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압박을 주고 교만을 주며 때로는 하기 싫어질 때도 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모든 일들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일이 내 일처럼 느껴지고 그 일이 주님을 기쁘게 한다면 기꺼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는 SRM 하는 동기를 묻는다면 주님과 사랑과 이웃 사랑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주님과 사랑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도 주님과 사랑 때문이다. 물질욕, 명예욕, 성욕 등은 모두 육신의 소욕이며 이것들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연구는 내 밥벌이와 성취감을 주는 요소 밖에 되지 않으며 내가 사는 이유는 즐기고 먹고 유명해지며 성취감을 가지려는 데 투자하게 된다. ‘학문의 즐거움’의 저자는 학문을 하는 이유는 자아 실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도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여겨진다. 이는 짧은 나그네 인생으로서 너무나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도바울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로마 전도여행을 떠난 것처럼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선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연구를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열정이 생기게 될 것이다. 5 달란트, 3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잘 간직하고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 열정은 결코 소멸하지 않고 그 사랑의 불은 꺼지지 않기 때문에 불이 타는 강렬한 열정이 생긴다. 그래서 캠퍼스에서 크리스천 공동체가 이 사랑의 불의 열정으로 연구하고 삶을 주님께 예배로 드리는 일이 일어나기를 꿈꾸고 있다. 그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런 크리스천 공동체는 카이스트의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될 것이다.

행 2: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다면 삶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제사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는 이 삶의 제사의 내용들을 다 담아서 아침 모임을 만들고, 아침부터 삶을 전체적으로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실천적으로 만들었다. 현재 아침 7시부터 8시 20분까지 모이고, 각자 연구실로 흩어지고 있다.

## 2.1 삶의 제사의 요소

삶의 제사는 아벨의 제사처럼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

히 11: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표 1 삶의 제사 요소와 성경구절

삶의 제사의 요소	내용	인용된 말씀
제사장	나 (우리)	벧전 2:5, 9
성전	우리의 몸	고전 3:16, 17
제사 (제물)	1. 예수그리스도	롬 3:25
	2. 우리의 몸, 성결	고전 3:16, 17
	3. 음성 듣기와 순종	삼상 15:22
	4. 찬양	히 13:15
	5.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호 4:6, 호 6:6
	6. 회개 (상한 심령)	시 51:17
	7. 감사	시 50:14, 시 50:23
	8. 입술의 선포	호 14:2, 히 13:15
	9. 선을 행함, 서로 나누어 줌	히 13:16
	10. 공의와 정의를 행함	잠 21:3
	1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막 12:33

## 2.2 삶의 제사의 말씀

**제사장 - 나 (우리) (벧전 2:5, 9)**

우리는 삶의 제사를 주님께 드리는 제사장이기도 한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만인 제사장 인우리인 것이다.

벧전 2:5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벧전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전 - 우리의 몸 (고전 3:16, 17)**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고전 3:16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전 3: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 2.3 제사를 드림

인용된 말씀을 찾아서 설명해보겠다. 구체적으로 제사에 대해 언급되어 있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이런 것들을 붙잡을 때 온전한 삶의 제사가 된다

### 2.3.1. 예수그리스도

**2.3.2. 우리의 몸, 성결 (고전 3:16, 17)**

고전 3:16, 17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결하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결하게 사는 삶이고 이는 죄와 분리된 삶을 의미한다. 죄와 멀어지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깨끗하게 사는 삶 자체가 예배라고 볼 수 있다.

**2.3.3. 음성 듣기와 순종 (삼상 15:22)**

삼상 15:22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다. 이 말씀은 순종이 제사의 행위보다도 더 좋은 제사이며 헌금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있다. 그렇다면 삶 속에서 음성듣기와 순종이 될 때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SRM 을 음성 듣고 순종함의 원리로 행하고 있다. 그래서 아침 모임 때 듣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만의 음성듣기를 성경적으로 정리해서 하고 있고, 각 지체들이 서로가 받은 감동이 성경적인지 확인해 주면서 분별하고 있다.

고전 14:29~32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제를 받나니

**2.3.4. 찬양 (히 13:15)**

히 13:15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된다. 그래서 일반 예배처럼 아침 모임에서도 찬양으로 모임을 시작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찬양이 영적 전쟁의 도구와도 같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짐을 경험하곤 했다.

**2.3.5.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 (호 4:6, 호 6:6)**

호 4:6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 6:6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번제보다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셨다. 모임에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더 증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야 사랑이 증가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증가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더욱더 증가 될 것이다. 크리스천공동체는 말씀과 성령의 두 기둥이 굳건히 서있어야 한다. 그래서 말씀으로 공동체가 가야 할 방향과 지체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을 정리해서 나누고 있다.

**2.3.6. 회개 (상한 심령) (시 51:17)**

시 51:17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글이다. 회개하는 기도로 제사를 드리기 원한다. 아침에 먼저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회개함으로 시작한다. 회개와 대적기도를 통해 먼저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인 우리의 몸을 깨끗게 한다.

요일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2.3.7. 감사 (시 50:14, 시 50:23)**

시 50:14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시 50:23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나올 때 입술로 감사의 제목을 내 놓은 적이 있었다. 그 때 마음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사라지고 평안함과 기쁨이 회복됨을 경험하였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께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마음에 열매를 맺게 되었다. 매일의 아침마다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는다.

**2.3.8. 입술의 선포 (호14:2, 히 13:15)**

호 14:2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히 13:15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믿는 자는 입술을 조심해야 한다. 부정적인 말 나오지 않게 해야 하며 저주와 판단하는 말을 삼가 해야 한다 왜냐하면 입술로 말하는 것이 제사이기 때문이다. 선포함에는 엄청난 강력한 힘이 있다. 매일 아침마다 입술의 선포로 제사를 드리고 있다.

**2.3.9. 선을 행함, 서로 나누어 줌 (히 13:16)**

히 13:16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도 아름다운 제사이다. 우리가 아침 모임으로 은혜를 받고 기름부음을 받으면 랩과 세상에 흠어져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줌으로 가정, 학교, 일터, 교회에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는 중이다. 그래서 아침모임을 하면서 연구 아이디어를 좋은 것을 받았는데 연구실의 다른 지체에게 필요한 것이면 그대로 주는 일들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고 있다.

**2.3.10.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잠 21:3)**

잠 21:3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다. 아침의 기름부음을 받고 세상에서 랩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려고 한다. 또한 우리는 악해진 세상을 바라보며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중보기도를 아침마다 드리고 있다. 연구실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거짓 없이 진실한 행동을 위한 것, 연구실에서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다.

**2.3.1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막 12:33)**

막 12:33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모든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결정이 나게 된다. 삶의 제사를 드리는 가장 최고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침마다 지체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연구실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을까에 대해 나누고 공유하고 있다.

## 2.4. 순서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성경에 삶의 제사에 대해 명백히 말씀하셨고, 삶 속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것들을 모아서 우리 공동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적합한 순서로 만들었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아침 모임을 진행하며 이 모임에서 받은 기름부음을 랩과 세상에 나아가서 풀어내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운동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SRM 이다.

시간 (대략)	순서와 내용
6:50 ~ 7:10	찬양으로 드리는 제사
7:10 ~ 7:20	회개 (상한 심령으로 드러지는 제사) 감사 (감사로 드리는 제사 )
7:20~ 7:30	증보기도와 선포 (공의와 정의 실현으로 드러지는 제사, 입술의 열매로 드리는 제사)
7:30 ~ 7:40	듣는 기도 (음성 듣기, 친밀함의 교제)
7:40 ~ 8:20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드리는 제사)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기도제목 나누고 하나님의 뜻 묻고 듣기 (음성 듣기와 순종으로 제사를 드림) (연구 계획, 삶의 계획 짜기, 주님의 지혜와 방법 구하고 듣기, 영혼 구하기 (딤후 4:2))
8:20 ~	아침 식사 + 교제 (초대교회처럼 매일같이 떡을 떼고 나눔)
8:45 ~	자유롭게 흠어지기 (먼저 삶의 일터로 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 일터에서의 예배, 교회 밖에서의 예배 (사랑을 실천, 음성 듣고 순종, 성결, 선을 행함, 나누어줌, 공의와 정의를 실현의 제사)

표 2 삶의 제사 순서

## 3.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드러지는 제사 (말씀 훈련)

SRM 을 하려면 영성 훈련과 함께 학문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학문을 하는 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 개발 하고 있다. 훈련의 대상을 이공계 대학원생에 두었다. 첫째 과정은 신부의 초대이고 두 번째는 신부의 성숙, 세 번째는 성숙한 신부의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훈련을 진행 하고 있다.

신부의 초대 훈련 과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수님 영접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 설명하고자 했다.

### 신부의 초대 훈련 과정 순서

- 1). 죄에 빠진 인간 (자범죄, 원죄)
- 2).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 3).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 4). 하나님의 말씀
- 5). 삼위일체
- 6). 사단, 천사
- 7). 인간
- 8).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 9). LOM (Life Offering Movement), SRM Introduction.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시 알게 하고 삶의 제사와 SRM 에 대해 소개할 수 있도록 했다.



### 신부의 성숙

두 번째로 넘어가는 훈련은 “신부의 성숙”으로 대상을 복음을 영접한 크리스천으로 정했고 이들이 성령을 아는 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매 주마다 말씀 자료와 함께 가르치고, 관련 추천도서를 정해서 읽게 하고 있다.

#### 1). 규모 있는 삶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보통 삶의 리듬은 늦게까지 연구하고 늦게 일어 나는 것이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아브라함과 여호수아 등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 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아침모임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규모 있는 삶에 대해 나누고 시작했다.

#### 2). SRM 을 위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듣는 기도)

SRM 의 핵심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 마음이 힘들 때 잡념이 많이 들 때 부르짖는 기도로 그것들을 없애게 하고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채우고 그 임재 안에서 듣는 기도를 하도록 성경적으로 훈련을 시켰다.

#### 3).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

최근에 기독교 서적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함에 대해 많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어떻게 하는 지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고 실습하는 훈련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우리 자신을 성령의 임재로 채우고 지체들의 기도제목을 듣는데 특별히 연구실 생활의 어려움이라든지 연구의 막힌 부분에 대해 듣고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가진 후에 서로에게 떠오르는 마음들과 지혜들을 나누고 성경말씀으로 분별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지혜로 실천해보니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 4). 예수님과 친밀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SRM 의 동기는 결코 연구로 인한 인생의 성공과 먹고 사는 것의 해결로 두지 않았다. 아주 순수하게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고 있다.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원하는 마음과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 연구하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기 위해 주님과 친밀감이 중요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목표이며 수단이며 방법이며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5). 광야 생활 - 자아의 죽음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한다. 이 죽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시험과 연단이라는 것을 통해 죽게 하신다.

#### 6). 성령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충만, 성령 받기 위한 기도)

#### 7). 초대교회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공동체

우리 SRM 의 특징은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이다. 공동체가 연구하는 개념으로 바꾸었고, 공동체 안에 지체들이 자신을 위해 연구하는 것이 아닌 서로를 위해 아낌없이 가르쳐주며 사랑이 동기와 방법이 되는 연구를 실현하고 있다.

#### 8). 변화 → 삶의 제사 드리기

변화에 대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지를 나누었다. 먼저 변화가 되어야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 9). 그리스도의 성품 닮기

SRM 을 하려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성품은 어떤 것이며 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죄와 멀어지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Teaching 했다. 2주에 걸쳐서 모든 죄에 대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크리스천들의 능력을 방해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죄이다. 성경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죄를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죄에 대해 선을 다시 그어서 죄의 틈을 막는 결단을 시키고, 중독의 경우에는 아침마다 공동체에 오픈 시켜서 죄를 고백하도록 하고 있다.

잠 28:13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과 죄에 대해서 훈련하고 있다.

- 참 교회 <-> 이단 (거짓 선지자와, 성령휘방죄)
- 하나님 사랑 <-> 우상 숭배 (중독)
- 연인의 사랑 <-> 음란, 외로움, 사랑중독, 짝사랑.
- 이웃 사랑 <-> 미움, 시기, 질투
- 권면, 분별 <-> 판단, 비판, 정죄
- 감사, 입술의 선포 <-> 염려, 걱정, 근심, 부정적인 말과 생각
- 겸손 <-> 교만, 열등감, 자기연민
- 투명한 생활 <-> 거짓, 도둑질
- 하나님의 열정으로 일하고 안식하기 <-> 게으름
- 완전한 축사

10). 타락이전의 일터 회복

성경에서 말하는 일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고,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기독교 세계관 관점으로 일터의 회복에 대해 가르쳤다.

11). 목상을 통한 연구,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연구

성경에 보면 일을 할 때도 성막과 성전을 지을 때 성령님의 영감으로 했다고 나온다. 오늘날에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성령의 영감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보았다.

12).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너무나 나약하다. 성경에서는 강한 군사가 되어라는 말씀을 하셨다.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군사로 훈련시키는 과정을 넣어보았다.

딤후 2:3, 4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신부의 성숙한 사역 훈련 과정**

1). 기름부음을 흘러 보냄

- 성령의 열매, 은사, 공의와 정의 실현, 사랑 실천

2). 복음 전도

SRM 에서 나타나야 할 가장 궁극적인 열매가 바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연구로 어떻게 영혼구원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해 훈련시키려고 했다.

3). 재정 다스리기

4). 초자연적 능력의 삶과 연구

우리 SRM 에서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자연적인 섭리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 연구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들이 어떻게 풀리는지 어떤 것들이 경험이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고 있다.

5). 과학에서의 기독교 세계관

그 동안 복음주의 운동에서 세계관에 대해 많이 연구를 해왔고, 특별히 과학에서도 그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부분을 깊이 나누어서 우리 공동체가 과학을 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과학을 바라보는 눈이 성경적이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다.

6). 영역을 다스리자

SRM 은 예배이면서 또한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스림의 명령에 대해 다시 재확인하고 과학과 공학 그리고 학문의 영역을 어떻게 다스리는 지에 대해 깊은 고찰을 해보고자 했다.

7). 사회 현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신문-뉴스, 인문학 책 읽기)

많은 정보가 흘러가고 있고, 신문 기사와 세상의 소식들을 들을 수 있다. 허나 많은 부분들이 인간의 죄와 얽매어져서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죄 된 시각들로 그 정보들을 얻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시 어떤 것인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공동체에 훈련시키고 공동체가 나누면서 세상의 흐름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며 중보기도 하며 그 흐름들을 읽어서 하나님의 대답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로 훈련시키고자 한다.

8). 연구에서의 구체적인 예배의 의미 (공학, 과학)

- 9). SRM 을 통한 학문의 융합, 공동체의 연합, 선교와 진도 그리고 카이스트 신앙 공동체 역사와 앞으로의 카이스트 부흥
- 10). 학문의 통합화와 온전한 학문의 주권 회복,
- 11). 북한 바라보기
- 12). 현대 연구 흐름
- 13). 소외된 연구 분야, 개척 연구 분야, 90% 를 위하여
- 14). 적정 기술

위와 같은 순서로 훈련을 시키고자 하고 있고, 위의 주제들은 앞으로 과학기술계를 이끌어갈 크리스천에게 꼭 필요한 훈련이라고 여겨진다.

#### 4. 연구를 삶의 제사의 일부분으로 어떻게 도입이 가능할지.

현재 우리 공동체에서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학위 과정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연구하며 그것으로 주님께 제사로 드리는 것을 먼저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우리의 믿음은 이것들이 현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이것들을 충실히 이행할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영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연구로 진전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모이는 아침모임에서 매일의 연구실 생활 속에서 연구 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운 것들을 나누고 함께 서로 가진 말씀 지식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나눈다. 또한 마음 속에 감동으로 오는 것들이 있으면 서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서로의 연구에 대해 조언과 격려를 해주고 있다. 여기에 대해 많은 열매와 간증들이 있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기록하는 노트에다가 매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지체의 경우는 평안가운데서 떠오르는 감동을 노트에 적어서 학회에서 발표한 지체도 있고, 논문으로 연결시킨 지체도 있다. 무엇보다도 이런 방법으로 하니 과거에는 문제가 막히면 힘들고 좌절 했지만, 이제는 공동체가 함께 하는 문제가 되어서 그 해결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공동체가 함께 누리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깊은 영혼까지 공유할 수 있는 Soul mate 가 될 필요가 있어서 우리의 연구 방법을 Study with Soul mates 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 신뢰, 그리고 겸손으로 완전히 충만해지는 것을 추구하며 진행되어 오고 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SRM Day 를 만들어서 모든 지체들이 자신이 하는 연구를 발표하게 한 후에 발표 내용을 붙들고 기도해주고, 막힌 부분을 혹시 아는 지체가 있다면 서로 연결해주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는 구체적으로 개인별로 연구를 나누어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하는 지를 자세히 듣는다. 그럼으로 매일 아침마다 기도제목을 나눌 때에 SRM Day 때 나눈 것들 바탕으로 함께 지혜를 모으고 있다.

공동체가 함께 음성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연구를 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모임 가운데 예배하면서 받은 지혜와 마음을 바탕으로 연구를 하면 이것이 바로 기록한 산 제사가 되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우리끼리 나중에 어떤 연구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많이 나누고 있다. 지금 현재 아침 모임은 7명이 하고 있는데 우리의 각자의 비전은 현재 연구와는 거리가 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들로 바꾸고 있다.

그래서 지체들의 예를 들자면 장애인을 돕는 로봇 개발로 장애인을 섬기는 것, 사회적 기업을 통한 소외된 자에게 복음과 사랑을 주는 것, 의료기술로 아픈 영혼들을 품으며 치유하는 것, 새로운 치유방법을 개발하는 것, 과학과 의학과 기도와 사랑으로 중독문제를 치유하는 것, 연구와 신학을 통한 영혼 구원 등으로 자신의 학문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서로 분야가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 융합적으로 접근하도록 돕고 있다. 이렇게 10년 20년 계속 가다 보면 학문의 분야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궁극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연구로 탈바꿈 될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이것들을 계속 하다가 크리스천 연구 학회도 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연구를 방법과 목적 그리고 결과를 공유하면서 학문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싶다. 그래서 더 이상 크리스천들이 학문의 영역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는 운동을 진행하고 싶다. 그 학회는 먼저 예배로 시작하고 연구 Presentation 을 하는 학회가 될 것이다.

## 5. 성령과 함께 하는 연구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에게 세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에 대한 시각을 제공해준다. 이런 관점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이라고 본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알며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과 교체해야 한다. 연구를 성령과 동행하며 교체하는 개념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연구를 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깊은 평안과 기쁨이 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은 예배 따로 연구 따로이며 연구 때 예배 때 느끼는 평안함을 보통 느끼지 못하고 있다. 우리 공동체의 경우 성령에 대해 많이 강조한다. 그래서 철저히 아침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 아침 마다 경험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바탕으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아침에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한 것과 못한 것에는 큰 괴리감이 있다.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여 평안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생각만을 쫓아가서 연구를 한다면 이것이 바로 성령과 함께 연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것은 말씀 그대로를 이루는 연구가 되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되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롬 8: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갈 5: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

갈 5:22, 23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경에 오홀리압과 브살렐이 나온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했다고 나온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의 연구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 크리스천 연구자들에게 이것이 회복 되어야 한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필요하고 죄와 멀어지도록 해야 한다.

출 31:1~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또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연구자라고 하면 나는 다윗을 뽑고 싶다. 다윗의 경우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대하셔서 짓는 것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설계를 하고 재료를 준비하였다. 여기에도 보면 설계를 영감으로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여호와와 손이 구체적으로 설계하셨다고 나와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연구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주신 것이 되어야 하고 성전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러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연습이 필요하다. 우리 공동체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연습을 1. 아침에 예배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 회복 2.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으면서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쫓아 순종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대상 28: 9~21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와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와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와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

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같고 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 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 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 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와 언약케를 맺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와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와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네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다윗은 진정 예배자임과 동시에 연구자였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는 모두가 예배자임과 동시에 연구자가 되도록 특별히 우리의 소명을 연구로 주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도록 하고 있다.

## 5. SRM 의 비전

우리가 가진 SRM 의 비전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속성을 학문에 담는 것이다. 그래서 학문의 통합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과제들을 융합연구로 답을 제시하는 연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연합과 창조를 연구가운데 행하기를 소원한다. 또한 말씀과 성령이 연구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일을 꿈꾸기를 원한다.

이것을 시작으로 Spiritual Research Institute 를 만들고 싶다. 항상 예배 드리는 연구소 찬양과 성령님의 임재가 과거 다윗의 장막처럼 충만하게 있는 그런 연구소를 만들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섬기는 연구를 하는 기관을 만들고 싶다.

현재 나는 우리 공동체가 보이지 않는 연구소를 만들었다고 믿는다. 비록 연구소는 없지만 지체들의 실험실을 이용한다면 우리는 이미 연구소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연구소장은 성령님이시고 연구원들은 공동체 지체들이며 실험실은 공동체 지체들이 사용하는 연구실인 것이다. 또한 나는 우리 7명의 아침 모임 지체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면 나중에 보이는 연구소를 만드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다른 학문을 하는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모임도 만들었다. 그래서 과학과 공학만 따로 가는 것이 아닌 신학과 인문학이 함께 가면서 세상을 섬기는 꿈을 꾸고 있다.

또한 대학원 캠퍼스 사역은 연구를 빼놓아서 안 된다. 그래서 신령한 캠퍼스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다. 현재 카이스트의 경우 정부가 지원해주는 학교이다. 그러나 이 학교에서 성령으로 인한 연구가 진행되고 더 발전된다면 카이스트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미션스쿨이 된다고 본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카이스트를 위해 기도하며 SRM 운동이 정착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운동이 다른 캠퍼스에도 흘러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더 궁극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꿈꾸는 것은 가정, 기업, 학교,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모든 지체들을 삶의 제사로 드리게 되는 삶의 제사 운동( LOM ) 을 일으키길 원한다. 그래서 나의 경우 지난 추석 때 집에서 이 운동을 증조할머니부터 조카까지 있는 앞에서 설명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회에서도 대전의 성시화를 위해 LOM 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지금 함께 기도하는 중이다.

### III. 결론

20대의 대학원생의 길로는 성령을 붙잡을 것인가 나 자신을 붙잡을 것인가에 따라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삶의 제사로 연구를 올려드리고 아침부터 예배로 성령충만함을 회복하고 공동체가 함께 사랑으로 연구하고 사랑을 위해 연구를 한다면 연구가 더 이상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이 아닌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닌 아름다운 예배가 되며 이것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크리스천이라면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 이유가 없다.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연구실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르네상스 이후로 학문은 세속화가 되어 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한다면 학문은 솔로몬이 타락한 다음 깨달아서 지었던 전도서의 말씀처럼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공부가 아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초심으로 지었던 잠언에 나타난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이 바탕으로 된 학문으로 회복 될 것이다.

전 12:12 내 아들이야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잠 1: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

참고 자료  
성경 말씀